

# 2026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

## (WORLD WATCH LIST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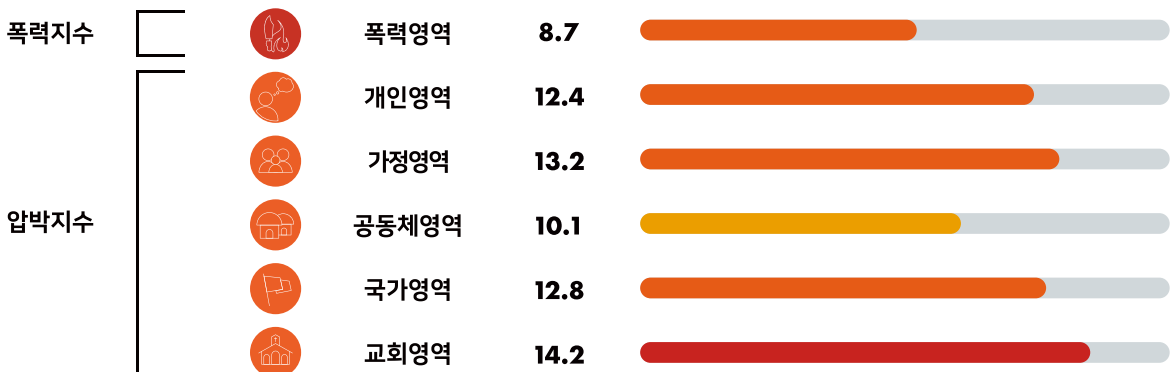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튀니지 (TUNISIA)

기독교 박해지수  
**31**위



###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별 총합은 100점이다 (6x16.7=100).

### 중요한 발견

WWL 2026 보고 기간 동안 튀니지 보안 당국은 튀니지 기독교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전례 없이 여러 명의 외국인 기독교인을 체포하고 이들의 자택을 수색했다. 당국은 미등록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에 대한 단속을 외국인 기독교인과 점점 더 연계하면서, 이를 구실로 ‘인신매매’ 혐의를 적용했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인권 비정부기구에 대한 이러한 탄압 강화로 두려움이 고조되었으며, 이들이 향후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많은 튀니지인 개종자들은 이미 사회의 적대감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숨겨야 한다고 느끼며, 이로 인해 신앙을 나누거나 예배를 위해 모이는 데 위험이 따른다. 신앙이 드러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많은 이들이 고립과 제한된 공동체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더불어 튀니지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 기독교인들도 지속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전도할 수 없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인종차별적 학대이다. 이는 2023년 2월 사이에드 대통령의 선동적인 발언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피신했으며, 남아 있는 이들은 WWL 2026 기간 동안 더욱 심각해진 폭력과 사회적 낙인에 직면했다. 여기에는 일상적인 괴롭힘과 강간을 비롯한 성폭력에 관한 보고도 포함된다.

# 튀니지 (TUNISIA)

## 국가 정보

지도자 : 카이스 사이에드 대통령

인구 : 12,666,000명

기독교인 수 : 23,000명<sup>1</sup>

주요종교 : 이슬람

정부형태 : 대통령제 공화국



## 국가 상황

| 종교 상황    | 신자 수 (명)   | 비율 (%) |
|----------|------------|--------|
| 기독교      | 23,000     | 0.2    |
| 이슬람      | 12,603,000 | 99.5   |
| 무신론/불가지론 | 34,600     | 0.3    |
| 기타       | 5,400      | 0.0    |
|          | 합계         | 100%   |

출처<sup>2</sup>

튀니지는 아프리카 최북단에 위치해 지중해와 아프리카, 중동이 교차하는 지점에 자리 잡고 있다. 튀니지 토착 아마지그('베르베르') 문화는 오늘날에도 남아 있지만, 카르타고로 잘 알려진 페니키아인과 로마인, 오스만인, 이후 프랑스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명의 영향을 받았다.

튀니지는 풍부한 기독교 유산을 지닌 나라로, 교회사에 큰 영향을 미친 세 명의 교부인 테르툴리아누스(서기 160~230년), 키프리아누스(서기 210~258년), 아우구스티누스(서기 354~430년)가 모두 카르타고에서 살며 활동하다 생을 마쳤다. 7세기 후반에는 아랍 군대가 이 지역에 이슬람교를 전파했다. 기독교는 11세기까지 튀니지에서 명맥을 이어갔으나, 프랑스의 정치적 보호 아래 많은 프랑스 기독교인이 튀니지에 정착한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다시 자리 잡았다. 1956년 튀니지가 독립한 후 많은 해외 출신 기독교인이 떠났고, 교회의 공개적인 활동은 점점 더 제한되었다.

2011년 튀니지 혁명은 높은 실업률과 부패, 제한된 자유가 수년간 이어진 끝에 대통령을 축출하며 '아랍의 봄'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후 10년 동안 정권이 빈번하게 교체되었고 경제적·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었다. 2021년 7월 카이스 사이에드 대통령이 권력을 장악했으며, 2022년 실시된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제 공화국이 수립되어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었다. 특이하게도 새 헌법은 이슬람교를 국교로 규정하지 않지만, 국가에 이슬람적 가치를 수호할 의무를 부여한다. 실제로 종교의 자유와 시민적 자유의 범위는 이제 대부분 대통령의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이후 사이에드 대통령은 야권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으며, 특히 주요 야권 인사인 라셰드 간누시(Rached Ghannouchi)를 체포했다. 또한 2023년 연설에서 범죄와 인구 구성의 변화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 주민들의 탓으로 돌려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 발언은 이주민뿐만 아니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계 튀니지인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촉발했다.

튀니지는 인구의 약 99.5%가 이슬람교를 믿는 이슬람교 중심의 국가이며, 정부는 기독교를 외래 종교로 간주한다. 로마가톨릭교회, 러시아정교회, 그리스정교회, 프랑스 개신교회, 성공회 등 해외 출신 기독교 교파만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며, 주로 수도 튀니스에서 활동한다. 튀니지인 기독교 개종자들은 사회적 소외와 정부의 감시, 법적 어려움에 직면한다. 2017년 제정된 법률

<sup>1</sup> Gina A. Zurlo 편,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5년 4월 열람.

<sup>2</sup> 기타(Other)는 합계가 100%가 되도록 하기 위해 표에 개별 항목으로 제시되지 않은 나머지 모든 범주를 의미한다:

Gina A. Zurlo 편,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5년 4월 열람.

로 무슬림 여성과 비(非)무슬림 남성의 결혼 금지가 해제되었지만, 사회적 반대로 인해 법이 온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개종자들은 가족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거나 자녀 양육권을 잃는 경우가 많으며, 기독교인들은 일반적으로 정부 기관과 군대의 직위에서 배제된다.

## 지역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가장 큰 위협을 받으며, 특히 보수적인 남부 지역에서 그러하다. 도시 지역, 특히 수도 튀니스에서는 개종자들이 가족의 압박에서 벗어나 신앙을 드러내지 않은 채 좀 더 익명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남부 국경 지역에서는 이슬람주의 무장세력이 활동하고 있으며, 기회가 생기면 기독교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 누가 영향을 받는가?

### 해외 출신 기독교인 공동체

해외 출신 기독교인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공개적인 전도는 용인되지 않는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 기독교인 공동체는 주로 인종 차별적 학대를 겪는다.

###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

이 범주는 '해외 출신 기독교인 공동체'에 포함된다.

### 기독교 개종자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주로 가족들로부터 권리 침해를 당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국가의 압박도 커졌다. 그러나 이들은 기독교 신앙에 관한 정보,

특히 온라인에 게시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기독교 개종자 공동체는 교회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대개 가정교회에서 모인다.

###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이 범주는 '해외 출신 기독교인 공동체'에 포함된다.

##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 이슬람주의적 억압

가정에서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이 가족에 의해 집 안에 강제로 감금될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이슬람주의 정당들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대통령은 튀니지를 이슬람 국가로 유지하려는 의지가 확고해 보이며, 튀니지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권리는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 독재정권의 편집증적 피해의식

사이에드 대통령은 2021년 7월 권력을 장악한 이후 다른 국가 기관들과 권력을 분담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새 헌법은 의회의 역할을 크게 약화하는 한편, 대통령에게 사실상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했다. 그 영향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이제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는 대통령에 의해 직접 결정될 것이다. 갈수록 권위주의적인 행보를 보이는 사이에드 대통령은 기독교 공동체를 면밀히 감시하고 통제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WWL 2026 보고 기간에는 국가의 감시가 더욱 강화되어 여러 명의 튀니지인 및 외국인 기독교인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 여성

튀니지의 기독교인 여성들은 사이에드 대통령 집권 아래 여성의 권리가 후퇴하면서 더욱 복합적인 취약성에 직면해 있다. 이들은 성희롱과 가정폭력, 경제적 차별을 겪으며, 그중에서도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여성들이 가장 심한 박해를 받는다. 여성 개종자들은 구타당하거나 가택 연금 상태로 감금되고, 집에서 쫓겨나가거나 강간 또는 살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기혼 개종자들은 이혼과 자녀 양육권 상실의 위험에 처하며, 미혼 개종자들은 특히 농촌 지역에서 무슬림 남성과 강제결혼을 당할 수 있다. 박해는 대개 집안에서 영향력이 큰 남성 친척에 의해 자행되며, 이로 인해 여성들은 고립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 여성에게 주로 나타나는 압박 요인:

- 납치
- 자녀 양육권 박탈
- 상속권·재산권 박탈
- 강제이혼
- 강제결혼
- 강제로 집에서 쫓겨남(추방)
- 가족에 의한 감금(가택 연금)
- 폭력 - 신체적 / 심리적 / 성적 / 언어적

### 남성

튀니지에서는 새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이 가장 취약하며, 남성 개종자들은 협박과 구타, 살해 위협, 실직에 직면한다. 가족들은 남성이 이슬람교를 떠나 집안에 수치를 안겼다고 여기며,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이들을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남성 개종자들은 가족으로부터 배척당하거나 상속권과 재산권을 박탈당할 수 있으며, 가족의 압박을 받은 아내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결혼할 기회를 잃기도 한다. 일부 가족은 결국 개종을 용인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남성 개종자를 영구적으로 집에서 내쫓아 다른 곳으로 이주하도록 강요한다. 기독교인 남성이 박해를 받으면 그 가족도 취약한 상황에 놓이며, 대개 생계 수입을 잃게 된다.

#### 남성에게 나타나는 대표적 압박 요인:

- 교육을 통한 차별 및 괴롭힘
- 사업·직장·노동 접근 제한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강제로 집에서 쫓겨남(추방)
- 폭력 - 신체적 / 심리적



## 월드 와치 리스트 5년 동향

|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
|------------|-----------------|---------------------|
| 2026       | 31              | 71                  |
| 2025       | 34              | 70                  |
| 2024       | 33              | 69                  |
| 2023       | 36              | 67                  |
| 2022       | 35              | 66                  |

전체 점수는 1.2점 상승했다. 튀니지가 다시 독재 체제로 회귀하면서 교회에 대한 감시와 체포가 강화되었으며, 특히 해외 출신 기독교인들이 표적이 되었다. 이러한 증가는 교회 영역의 압박과 폭력 점수에서 가장 두드러졌으며, 폭력 점수는 8.1점에서 8.7점으로 상승했다. 튀니지인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 기독교인들의 여러 모임이 급습을 당하거나 모임을 중단하도록 강요받았다. 이로 인해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어 대개 신앙을 숨기는 튀니지인 기독교 개종자들에 대한 압박이 더욱 커졌다.

##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튀니지인과 외국인 기독교인에 대한 체포가 증가하면서 많은 튀니지인 신자들이 스스로 고립된 생활에 들어갔다. 기소된 사람은 없지만, 이러한 체포는 위축 효과를 일으키고 가족과 지역 사회 내에서 낙인을 찍게 한다.
- WWL 2026 보고 기간에는 새로운 양상으로 튀니지 당국이 여러 명의 외국인 기독교인을 체포해 구금했다. 이전까지 당국의 조치는 비자 신청이나 체류 허가 갱신을 거부하는 데 그쳤다.
- 튀니지의 젊은 기독교인들은 가족과 지역 사회로부터 학대를 당했다. 기독교인 아동들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고, 한 교사는 여학생 한 명을 '불신자'라고 불렀다. 한 청년은 라마단 기간에 이슬람 사원에서 기도를 인도하라는 압박을 받았으며, 한 젊은 여성은 기독교인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도록 가족에 의해 강제로 다른 지역으로 보내졌다.



|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 구금된 기독교인 수 |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당한 기독교인 수 | 공격받거나 폐쇄된 교회 또는 기독교 건물 수 | 국내에서 집을 떠나도록 강요받은 기독교인 수 |
|------------|------------|-----------------------|--------------------------|--------------------------|
| 2026       | 14         | 19                    | 8                        | 21                       |
| 2025       | 17         | 47                    | 7                        | 21                       |

이 표에는 보고 기간 동안 신앙 기반 폭력의 몇 가지 범주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결과는 해당 국가의 WWL 박해 다이내믹스 보고서의 폭력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세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상징적 반올림한 수치(10\*, 100\* 또는 1000\*)가 표시되며,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동일한 원칙이 상징적인 숫자인 10,000\*, 100,000\* 및 1,000,000\*에도 적용된다.

## 개인 영역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가족으로부터 극심한 압박을 받으며, 특히 젊은 개종자와 최근에 개종한 이들이 그러하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더 큰 위험에 처한다. 다른 기독교인들을 만나거나 기독교 자료를 소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에게 배척당하고 지원을 잃을 수 있다. 사회적 낙인 때문에 다른 기독교인들과 교류하기 어려워 많은 이들이 신앙을 숨긴다. 개종자들이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할 방법을 찾고 다른 기독교인들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위험과 압박은 대체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든다. 그러나 일부는 가족에게 배척당한 후에야 비로소 압박에서 벗어난다.

## 가정 영역

튀니지 사회는 비(非)무슬림을 외부인으로 여기며, 이들을 튀니지의 주류 수니파 문화에 동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차별한다. 튀니지에서 비(非)무슬림은 아동을 입양할 수 없다.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배우자는 이혼당하고 자녀 양육권을 잃을 수 있다. 기독교 개종자의 자녀는 의무적으로 이슬람교 수업을 받아야 하며, 부모의 종교 때문에 사회적 배척과 괴롭힘, 심지어 폭력을 겪을 수도 있다.

## 지역사회 영역

개종자들은 특히 농촌 지역에서 지역 사회의 괴롭힘과 사회적 고립을 겪는다. 젊은 여성 개종자들에게는 무슬림 남성과의 강제결혼이 흔히 위협 수단으로 이용된

다. 개종자들은 고등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구직 과정에서 차별을 당하며, 이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불매운동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튀니지 기독교인들은 차별을 피하기 위해 외국계 기관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경향이 있다.

## 국가 영역

다른 많은 아랍 국가와 달리 샤리아법은 튀니지 법률의 주요 근원이 아니지만, 이슬람교는 여전히 국가 영역을 지배한다. 당국은 일반적으로 비(非)무슬림을 동등한 지위를 누릴 자격이 없는 외부인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인식은 기독교인에게 희생양으로 삼고 그들에 관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적대적인 언론에 의해 더욱 확산된다. 감시는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경찰은 튀니지 기독교인들의 활동에 관해 정기적으로 심문한다. 통상적인 여권 재발급 신청조차도 상세한 심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 교회 영역

튀니지인 개종자들은 교회를 등록할 수 없으며, 1956년 튀니지가 독립한 이후 공식 등록을 승인받은 신규 교회는 한 곳도 없다. 등록된 교회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지만, 교회 소유 재산의 유지·관리와 직원 고용, 아랍어 기독교 문헌의 출판·배포 허가 취득 등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성경 판매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공개적으로 판매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기독교 자료를 무료로 배포하는 행위는 개종 권유로 간주되어 금지된다.



## 국제 의무 및 권리 침해

튀니지는 다음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2.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3.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CAT)
4.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5.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CRC)

튀니지는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 개종자들은 가족에게 배척과 반대를 당하며, 이혼과 자녀 양육권 상실의 위협을 받는다(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 기독교인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다(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4조)
- 기독교인들은 공공 부문 취업에 제한을 받고 민간 부문에서 차별을 겪는다(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5조 및 제26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에 관해 이야기하거나 개종 권유 활동을 할 경우 괴롭힘과 폭력을 당한다(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제19조)

## 튀니지의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튀니지의 바하이교 신자들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자체 예배 장소도 마련할 수 없지만, 최근에는 당국자들과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유대교 공동체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며 정부로부터 유대교 회당에 대한 지원도 받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관광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23년 5월 유대교 축제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나온 공격 사건을 축소해 다루었다.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관계는 대체로 평화롭지만, 시아파 무슬림들은 일부 차별을 겪는다. 무슬림 배경의 무신론자들은 자신의 신념을 숨기거나 사회의 관습에 따르도록 가족과 사회로부터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다.



## 오픈도어의 튀니지 사역

오픈도어는 현지 협력 단체 및 교회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북아프리카 교회를 지원한다.

- 지도자 훈련 및 멘토링
- 제자 훈련, 신학 교육 지원, 박해 대비 훈련, 성경 및 기독교 서적 배포
- 여성을 위한 트라우마 상담 훈련, 박해받는 기독교인을 위한 법률 지원 및 실질적 지원
- 소규모 사업 창업을 위한 소액 대출, 직업 훈련, 의료 지원 및 구호 물품 제공을 통한 생계 지원
- 튀니지 신자들을 위한 기도 후원 독려



### 이 보고서에 관하여

- 이 국가 보고서의 내용은 오픈도어 인터내셔널(Open Doors International)의 조사 부서인 월드워치리서치(World Watch Research, WWR)가 수행한 상세 분석에 근거합니다. 이 보고서는 무료로 사용 및 배포할 수 있으나, 출처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해야 합니다: © 2026 Open Doors International.
- 50개 모든 국가 보고서와 WWL 산정 방법 (방법론)의 최신 업데이트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WL 2026 보고 기간은 2024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입니다.

*\* 이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사진은 설명을 위한 예시 이미지입니다.*